

# 金利의 調整과 構造改善

## 車 輦 權

<目 次>	
I. 머리말	4. 優待金利에 의한 金融支援의 擴大
II. 金利現實化 및 金利下向調整의 效果	IV. 金利의 調整方向
1. 預金金利의 引上和 金融貯蓄	1. 預金金利의 調整
2. 貸出金利의 引上和 그 效果	2. 貸出金利의 調整
III. 高金利政策의 問題點	V. 附記
1. 企業의 金利負擔 加增	1. 金融機關與受信業務 最高利率
2. 企業財務構造의 不健全化	2. 金融機關與受信業務 實行利率
3. 內外金利의 差異	3. 特殊銀行金利의 引下調整

### I. 머 리 말

金利調整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金利體系를 조정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金利水準을 조정하는 문제이다. 65年 9월에 金利現實化를 단행하여 高金利體制를 채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차예<sup>(1)</sup>에 걸쳐 小幅的인 金利의 引下調整을 실시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現行金利는 아직도 國際水準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國際競爭力의 增加나 資本市場의 育成을 위해 金利는 계속 下向調整되어야 한다는 意見이 있다.<sup>(2)</sup>

그러나 그 反面에 金利의 下向調整은 바람직한 일이기에는 하나 物價上昇要因이 作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追加的인 資金供給源으로써 私金融市場이 重要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고 또 開發資金의 調達이나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계속 貯蓄增大에 힘써야 할 條件을 前提로

(1) 우리나라 預金銀行의 預·貸金利는 1971年 6月 28일에 다시금 小幅引下 調整되었으나 이 論文은 1971年 5월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論及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金利調整의 內容과 그 意義는 附記에서 검토하고 있다.

(2) 全國經濟人聯合會나 大韓商工會議所를 위시한 財界 및 業界의 意見은 金利의 下向調整에 集約되고 있다. (全國經濟人聯合會, 「經濟內實과 競爭體制의 構築」, 『70年民間經濟白書』, p. 155 및 서울商工會議所, 『金融制度의 改編方向建議』, 1971.6, pp.11-12; pp.42-4 參照.)

할 때 貸出金利의 引下는 低利金融에 따르는 間接補助와 그에 수반된 바람직하지 못한 副作用을 擴大시킬 우려가 있고 預金金利의 引下는 貯蓄性預金の 鈍化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에 物價가 安定되고 正常金融의 기능이 擴大되어 金利의 引下が 貯蓄意慾을 크게 阻害하지 않는 輿件이 마련되기 前에는 金利의 下向조정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인플레이」를 감안한 實質金利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도 있다.<sup>(3)</sup> 또 설사 金利의 引下が 소망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低利金融에 따른 特惠의 增大를 排除하고 貯蓄誘引이 弱化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小幅의인 金利의 引下調整이 必要하다는 意見도 있다.<sup>(4)</sup>

또한 現行 金利體系는 預金 및 貸出金利를 막론하고 短期性資金의 金利보다 中長期性資金의 金利가 낮게 策定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不合理한 期間別 金利構造가 長期性貯蓄을 기피케하는 한편 長期貸出이나 延滯를 더욱 助長하는 폐단이 있다. 그밖에 一般金利와 支援金融金利의 差異가 크기 때문에 低利金融인 支援金融需要를 增大시키고 나아가 一般金融 및 私金融需要를 유발시키는 문제도 있다. 또한 支援金融에 적용되는 優待金利의 경우 그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資金源泉에 따라 利率에 差異가 있고 그 構造가 매우 복잡하며 金利體系의 單純化가 요망되고 있다.<sup>(5)</sup>

본 논문은 이미 제기되고 있는 金利調整에 관한 主要問題를 中心으로 우리나라 金利構造 및 그 水準을 分析 검토하여 보고 合理的인 調整方向을 모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高金利政策의 得失과 金利引下調整의 效果 그리고 金利構造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II. 金利現實化 및 金利下向調整의 效果

銀行預金에 대한 金利와 貸出金利를 대폭 上向調整한 65년의 金利現實化는 貯蓄者에게 보다 매력적인 實質金利를 제공하여 民間部門의 自發的 貯蓄을 增大시키고 正常金融市場

(3) Hugh Patrick, *Thoughts on Korean Monetary and Financial Research Policy*, memo., Aug. 29, 1970, pp.5-10.

(4) Irma Adelman & D. Cole, "Approach to the Third Plan," *Report of Consultants on Third Plan*, memo., Aug. 13, 1969, pp.25-7.

(5) 西江大學校附設 經濟·經營問題研究所, 『韓國의 金融市場과 企業投資金融에 관한 研究』, 1970. 11, pp.98-101; pp.122-23.  
韓國經濟開發協會, 『一般金融의 効率化를 위한 制度改善方案에 관한 研究報告書』, 1971.2, p.59.

의 金利와 私金融市場의 金利間의 격차를 줄여 正常金融機能을 확대시키는 한편 貸出金利를 높여 企業의 自己金融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貸出資金의 非生産的 使用을 억제하려는 데 그 基本目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6)</sup>

1. 預金金利의 引上和 金融貯蓄

定期預金の 最高金利를 年 15%에서 月利 2.5% (年利 30%)로 引上하고 一般貸出金利도 年 16%에서 年 26%로 대폭 引上한 金利現實化는 金融貯蓄을 增大시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成功하였으나 高率의 貸出金利를 적용하여 企業의 自己金融을 촉진하고 또 貸出

〈표 II-1〉 預金銀行 預金利率 單位: 年利%

	1965.9.30 以前	1965.9.30	1968.4.1	1968.10.1	1969.6.1
貯蓄性					
定期預金					
3개월	9.0	18.0 (1.5)	15.6 (1.3)	14.4 (1.2)	12.0 (1.0)
6개월	12.0	24.0 (2.0)	20.4 (1.7)	19.2 (1.6)	16.8 (1.4)
1년 이상	15.0	26.4 (2.2)	26.4 (2.2)	25.2 (2.1)	22.8 (1.9)
1년6개월이상	—	30.0 (2.5)	27.6 (2.3)	— (—)	—
새生活預金	—	—	12.0	12.0	9.6
通知預金	3.65	5.00	5.00	5.00	5.00
定期積金	10.0	30.0	28.0	25.0	23.0
要求拂					
普通預金	1.8	1.8	1.8	1.8	1.8
別段預金	1.0	1.0	1.0	1.0	1.0

자료: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年.

資金의 非生産的 使用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金利現實化가 단행된 후 銀行預金, 특히 貯蓄性預金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1965年 9月—12月 기간中 貯蓄性預金은 47%가 늘어났고 그 후에는 69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은 增加勢를 유지하였다. 이는 65年 9월에 단행된 金利現實化가 모든 貯蓄性預金の 金利를 大幅 끌어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定期預金利率을 私金融市場에 있어서와 같이 月別로 支給하도록 하고 3개월·6개월滿期의 定期預金利率을 각각 2倍로 引上하여 短期貯蓄性預金の 吸收에 注力한 것 등이 奏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6) 韓國銀行, 『第16次 年次報告書』, 1965 및 S. Kanesa-Thanan, "Stabilizing an Economy: The Korean Experience," *Practical Approaches to Development Planning*, 1969, p.264. 參照.

(7) 正常金融市場의 金利를 私金融市場의 金利에 接近시키되 相對的인 危險負擔을 감안하여 合理的인 差異를 두어야 한다는 金利現實化方案은 1965年 6월에 提出된 「韓國金融構造」에 관한 研究報告書에서 진 의된 바 있다. (John G. Gurley, Hugh T. Patrick & G. S. Shaw, *The Financial Structure of Korea—Preliminary Draft*, 1965.6.24, pp.51—4; pp.105—06 參照.)

〈표II-2〉

通貨量 및 金融機關預金貸出의 변화

(1964~1970)

단위 : 10억원

年 月 末	1) 實質通貨量	實 質 預 金 <sup>1)</sup>		實 質 貸 出 <sup>1)</sup>		民間部門所得 <sup>2)</sup>	
		預金銀行	貯蓄性預金 <sup>3)</sup>	預金銀行	產業銀行	個人可處分所得	課稅後法人利潤
1964.12	51.3	45.5	21.5	56.0	33.4	642.65	18.78
1965. 9	59.9	62.6	26.2	61.9	33.8	—	—
1965.12	63.4	76.9	38.5	70.6	36.0	671.38	25.54
1966.12	75.8	108.8	78.6	92.4	41.9	751.06	28.22
1967.12	100.7	172.6	143.0	148.4	43.9	789.49	30.13
1968.12	117.2	291.9	244.0	240.1	52.0	861.85	33.67
1969.12	158.5	450.3	379.6	385.1	69.9	1,007.20	38.32
1970.12	200.9	513.8	432.0	463.2	84.5	—	—
1965.9 ~1970 增加率(倍)	3.35	8.20	16.49	7.48 (5.74)	2.50	1.57	2.04

자료 : 한국은행, 『統計年報』 및 『統計月報』, 1970.

주 : 1) 都賣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

2) GNP Deflator로 디플레이트.

3) 金錢信託 및 產業銀行 水協의 貯蓄性預金 포함.

65年 9월에 실시된 高金利는 그후 68년에 두차례 그리고 69년에 한차례 引下調整되었다. 70年 12月末 현재 65年不變價格에 의한 貯蓄性預金은 金利現實化 當時에 비하여 약 16.5배의 規模로 늘어났으나 實質通貨量은 약 3.5배, 預金銀行 및 產業銀行貸出은 약 5.7배가 늘어났으며 預金金利引上이 매우 강한 貯蓄誘引으로 作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實質個人可處分所得과 課稅後 法人利潤이 1964—69年 기간중 1.57배 및 2.44배로 각각 늘어남에 따라 民間貯蓄率도 64年の 6.5%에서 69년에는 10.9%로 急激히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金利現實化 이후 貯蓄性預金이 급속히 늘어난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金利現實化이후 貯蓄性預金의 推移를 보면 年年 그 增加勢가 鈍化되어 70年末에는 對前年比 13.8%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 金利現實化이후 預金金利는 68年 4月 1日, 68年 10月 1日, 그리고 69年 6月 1日에 각기 小幅的인 下向調整이 가하여 졌으나 貯蓄性預金은 68年末에 對前年比 70.6%(實質), 69年末에 55.6%(實質)가 늘어났다. 또 預金銀行의 貯蓄性預金과 金錢信託의 推移를 보더라도 68年 및 69年の 金利下向調整을 前後하여 貯蓄性預金의 增加率은 크게 變化하지는 않고 있다.

69年 4/4分期에서 70年末에 이르는 기간중 貯蓄性預金의 增加率이 현저하게 鈍化된 것은 무엇보다 먼저 財政 및 金融面에 있어서 艱축이 實施됨에 따라 實物經濟의 成長率이

<표 II-3>

貯蓄性預金の推移

단위: 10억원

	都賣物價指數	貯蓄性預金 <sup>1)</sup>		增減率(%) <sup>3)</sup>	
		名目	實質 <sup>2)</sup>	名目	實質
1962. 12	57.3	15.0	26.2	150.0	124.7
1964. 12	94.8	20.4	21.5	12.1	△ 12.2
1965. 9	102.4	26.8	26.2	31.4	21.9
1965. 12	102.1	39.3	38.5	46.6	46.9
1966. 12	111.1	87.3	78.6	122.3	104.2
1967. 12	119.3	161.2	143.6	84.7	81.9
1968. 12	127.8	311.8	244.0	93.8	70.6
1969. 12	137.5	522.0	379.6	67.4	55.6
1970. 12	152.6	659.3	432.0	26.3	13.8
1965.9~1970.12 (增加倍數)		24.6	16.5		

자료: 한국은행,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주: 1) 預金銀行 貯蓄性預金, 金錢信託, 非通貨金融機關貯蓄性預金.

2) 名目預金 / 都賣物價指數.

3) 對前年末增減, 但, 65.9 및 65.12는 자기 6個月, 3個月간의 변화율.

<표 II-4>

貯蓄性預金の期別動向

(1966~1970)

단위: 10억원

	1.4 分期		2.4 分期		3.4 分期		4.4 分期	
	金額	對前期末 增加率	金額	對前期末 增加率	金額	對前期末 增加率	金額	對前期末 增加率
1966	39.3	27.2	48.1	21.0	60.5	26.2	70.1	15.4
1967	83.1	19.2	99.3	18.9	115.5	18.0	128.9	11.0
1968	148.5	16.4	183.7	22.2	223.7	21.7	255.5	11.7
1969	308.2	18.5	372.9	18.4	434.7	15.5	451.5	4.2
1970	471.5	6.0	496.2	4.6	529.9	6.5	573.3	6.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및 『통계월보』, 1970.

주: 預金銀行定期預金 및 金錢信託.

69年度の 15.9%에서 9.7%로 低下되고 國內總資本形成增加率도 69年の 45.9% (經常價格)에서 8.6%로 급격히 低下된 것이나 流動性規制의 결과로 通貨量이나 金融機關與信의 增加率이 低下된데 그 主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8)</sup>

바꾸어 말하면 세차례에 걸친 小幅의인 金利引下가 貯蓄誘引을 弱화시키지 않았다고 斷定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金利引下가 貯蓄性預金を 減少시키는 唯一하고 決定的인

(8) 韓國銀行, 『第21次 年次報告書』, 1970年, pp.3-5.

要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9)</sup> 이는 두차례에 걸친 金利引下가 실시된 68年 2/4分期以後 69年 1/4分期에 이르기까지 그 期末貯蓄性預金殘額增加率은 67年度보다 높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 2. 貸出金利의 引上과 그 效果

65年 9月の 金利現實化는 貸出金利도 預金金利와 같은 幅으로 引上調整하였다.

〈표 II-5〉 一般銀行主要貸出金利 단위: 年利 %

	1965.9.30 以 前	1965.9.30	1967.6.29	1968.10.1	1969.6.1	1970.4.1
상업 어음 할인	14.0	24.0	24.0	26.0	24.6	24.0
수출 어음	8.0	6.5	6.0	6.0	6.0	6.0
외화표시공급어음	8.0	6.5	6.0	6.0	6.0	6.0
원조물자수입어음	14.0	26.0	26.0	25.2	24.0	24.0
기타 어음	16.0	26.0	26.0	26.0	25.2	24.0
당좌대월	18.5	26.0	28.0 <sup>1)</sup>	28.0	26.0	26.0
적금대출	15.7	26.0	26.0	25.2	24.0	24.0
적금담보대출	12.0	20.0	20.0	20.0	18.8	18.8
연체어음	20.0	36.5	36.5	36.5	36.5	36.5
콜본	12.0	22.0	22.0	22.0	21.0	21.0
새생활예금	—	—	14.0	14.0	11.6	11.6
기계공업육성자금	—	—	—	12.0	12.0	12.0

자료: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주: 66年 2月 1일부터 적용.

一般銀行 一般貸出金利는 從前의 年 16%에서 26%로 引上되었다. 그러나 一般貸出, 當座貸越, 積金貸出 등에 적용되는 年 26%의 利率은 最高預金利率과 逆金利體系를 나타내게 되었던 까닭에 延滯貸出을 억제하기 위해 延滯어음에 대하여는 年 36.5%의 利率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金利를 引上調整한 것은 주로 金融資金에 의한 一般貸出에 限定된 일이었고 政策金融貸出에 대한 金利는 오히려 引下되었다(輸出어음). 또 特殊銀行貸出金利도 金融資金과 一部 財政資金貸出에 한하여 上向조정되었으나 財政資金貸出에 대한

(9) 金利現實化이후 名目金利를 점차적으로 引下하였으나 貯蓄性預金은 현저히 늘어난 自由中國의 成功的인 例에서도 이를 확인하여 볼 수 있다. (韓國銀行, 「東南亞諸國의 開發金融政策의 특징과 최근의 動向」, 『調査月報』, 第24卷, 第11號, 1970.11, p.33 參照.)

적용金利는 上向조정하되 從前과 같이 낮은 水準을 유지하였다. (10)

貸出金利를 年 26%水準으로 大幅 引上한 것은 資金에 대한 假需要를 억제하는 한편 企業의 自己金融을 촉진시키기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으나 貸出金利의 幅이 넓었기 때문에 年 26%에 달하는 高率인 代表金利의 적용은 실제에 있어서 制約을 받았다. 즉 一般銀行의 貸出中 輸出入의 增大와 관련된 貸出金利를 비롯하여 年利 20%가 적용되는 積金擔保貸出 등이 약 3分の 1을 占하고 있었기 때문에 一般銀行의 加重平均貸出利率은 약 18-20% 線에 머물렀던 것이다. (11)

그 뿐만 아니라 貸出財源을 主로 財政資金에 의지하고 있는 特殊銀行의 與信增大는 低利率자에 의한 貸出金利의 확대를 의미하였고 内外金利의 差異는 國內에서 與信規制가 강화됨에 따라 外國借款에 의한 資金調達을 促進시켰다. 그리하여 실제에 있어서 借入金에 대한 平均金利는 代表貸出金利를 훨씬 下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物價上昇이 계속됨에 따라 實質利率은 더욱 低下되었던 것이다. (12)

그리하여 金利現實化이후에도 經濟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金融資産에 대한 需要는 계속 強勢를 유지하였으나 그러한 현상이 생겨난 데에는 貯蓄性利率預金所得에 非課稅하고 企業의 支給利率은 損金으로 取扱하는 稅法上的 措置에 一部の 責任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13)

65年 9月の 金利現實化이후 貸出金利에 대하여도 여러차례 部分的인 조정이 加하여 졌으나 預金金利와 같이 金利引下의 幅이 컸던 것도 아니고 또 金利體系의 單純化가 이루어

(10) 一般銀行의 金融資金貸出에 대한 適用金利중 輸出어음 및 外貨表示單納어음貸出金利는 종전의 8%에서 6.5%로 각각 引下되었다. 또 特殊銀行貸出의 경우 金融資金貸出인 農業資金貸出金利는 종전의 16%에서 20-23%로, 中小企業資金貸出金利는 14%에서 23%로 引上되었으나 財政資金에 의한 貸出인 韓國產業銀行의 特殊資金貸出金利는 6%에서 7.5%로, 中小企業銀行의 각종 貸出金利는 10%에서 16%로 각각 引上되었다.

(11) S. Kanasa-Thanan, 前掲書, p. 265.  
그러나 韓國銀行 資料에 의하면 一般銀行 貸出金 加重平均利率은 65年下半期 16.05%에서 66年上半期에는 22.89%로 높아졌고 1969年 9月 현재 21.8%로 계측되고 있다. (韓國經濟開發協會, 「一般金融의 効率化」, 前掲書, p. 30 參照.)

(12) 一般貸出金利 24%以下の 各金融機關에 의한 支援金融의 比重과 平均金利水準은 다음과 같이 計測되고 있다. (西江大學校附設 經濟·經營問題研究所, 前掲書, p. 99 參照.)

① 全金融機關總貸出에 대한 支援金融의 比重(%)  
1965...59.9, 1966...53.2, 1967...52.9, 1968...49.0, 1969...45.0

② 總貸出金의 加重平均金利(%)  
1965...16.34, 1966...17.18, 1967...16.80, 1968...18.39, 1969...18.59

(13) Robert H. Johnson, *A Survey of Korea's Fiscal System in relation to the Thir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prepared for MOF, ROK and USAID-Korea, Sept. 19, 1970, pp. 41-3.

어진 것도 아니었다. 이는 金利現實化가 預金金利構造와 有効貸出金利間의 差異를 좁혔던 까닭에 銀行收支를 惡化시키게 되었던 것과 우대금융의 金利를 조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던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II. 高金利政策의 問題點

65年 9월에 실시한 金利現實化는 高金利政策을 채택하되 점진적으로 貸出金利間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自由中國의 經驗과 같이 經濟安定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서히 一般金利水準을 下向調整할 方針이었다. 그리하여 68년에 두차례에 걸쳐 預金利率을 下向調整하고 69年 6월에 다시금 小幅이나마 引下調整한 것이나 65年 9月 이후 部分的으로 貸出金利를 下向調整한 것은 모두 그러한 當初의 意圖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預金金利와 달리 貸出金利는 一般貸出, 積金貸出 등에 대한 適用金利가 65年 9月末 현재의 水準에 비해 1.2%—2% 「포인트」가 떨어졌을 뿐 그밖의 一般銀行 主要 貸出金利는 거의 모두 65年 9月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高金利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결과로 金利現實化당시에 기대하였던 經濟的 利益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 反面에 利率의 硬直化로 인해 金利의 資金需給기능이 弱화되고 資金配分에 대한 政策的 規制를 강화하는 政策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 1. 企業의 金利負擔 加增

65年 9월에 실시한 金利現實化는 貸出金利를 大幅 引上하되 결과적으로는 企業의 金利負擔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高金利가 企業의 自己金融을 擴大시키고, 貯蓄性 預金の 增大를 바탕으로한 資金 availability의 增大는 私債依存度を 줄이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金利現實化는 分明히 私債利率을 떨어뜨렸으나<sup>(14)</sup> 資金需要가 늘어남에 따라 私債依存度は 오히려 높아졌다.<sup>(15)</sup> 企業의 金利負擔은 總費用, 賣出額, 附加價值 등에는 指標에

(14) 月 5.5%이상의 高利私債를 쓰는 業體의 比重은 1965年 1/4分期의 30%에서 1966年 同期에는 25.2%로, 1967年 同期에는 15.2%, 1968年 同期에는 13.4% 그리고 1969年 同期에는 9.1%로 각각 줄어들었다. 그 반면에 月利 4% 未滿의 私債利用者의 比重은 1965年 1/4分期의 7.3%에서 1969年 同期에는 23.9%로 늘어났다. (大韓商工會議所, 『私金融利用實態調查報告書』, 各年度上下半期 參照.)

(15) 內國稅중 丙種配當利子所得稅 實額을 기준으로 하고 私債利率을 月 4% (年48%)로 할 때 推定된 私債流通量은 1965年の 月平均 110억원 水準에서 1970년에는 月平均 866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중 預金銀行 貸出金은 785억원에서 7,068억원으로 늘어났다.



<표 III-1>

企業의 金利負擔  
(製造業)

단위 : %

	金融費用/總費用	金融費用/賣出額	金融費用/附加價值
1 9 6 4	5.22	4.89	14.1
1 9 6 5	4.17	3.91	13.3
1 9 6 6	5.99	5.65	19.2
1 9 6 7	5.43	5.19	18.6
1 9 6 8	6.12	5.90	20.1
1 9 6 9	7.88	7.81	23.6

자료 : 韓銀, 『企業經營分析資料』, 各年度.

비하여 보더라도 그 相對的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金融費用이 加增되고 있는 현상은 企業의 他人資本依存度가 높은 데도 기인 하지만 主된 原因은 역시 高金利에 있으며 金融費用의 增大 및 그 水準이 높은 것은 國際競爭力을 弱化시키는 原因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企業不實化의 一部 原因도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2. 企業財務構造의 不健全化

金利現實化의 목적중에는 企業의 自己金融促進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다. 高金利은 企業의 銀行資金需要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妥當한 것이었다. 그러나 66년부터 企業의 財務構成은 他人資本依存度를 더욱 높였다. 이는 그 간 投資需要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또 高金利下에서 企業이 株式을 發行하여 資金을 조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보겠으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稅法上 支給利子를 損費에 算入시켜 주고 貯蓄性預金利子所得에 非課稅하는 措置,<sup>(16)</sup> 또는 私債利子

<표 III-2>

企業의 資本構成  
(製造業)

단위 : %

	總 資 本	自 己 資 本	他 人 資 本
1 9 6 3	100.0	52.0	48.0
1 9 6 4	100.0	49.9	50.1
1 9 6 5	100.0	51.6	48.4
1 9 6 6	100.0	45.9	54.1
1 9 6 7	100.0	39.8	60.2
1 9 6 8	100.0	33.2	66.8
1 9 6 9	100.0	27.0	73.0

자료 : 韓國은행, 『企業經營分析』, 1971.

(16) 稅法上의 그러한 措置때문에 兩建預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으나 그러한 현상이 생겨난 것

所得에 대한 低率課稅 등의 措置나 内外金利差를 이용한 借款導入의 촉진 등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内外金利의 差異

金利現實化는 内外金利의 격차를 확대시켜 不健全한 「Impact Loan」의 導入을 촉진하였으며 內資조달용 借款導入額은 入金베이스로 65年의 9.4百萬달러에서 69년에는 88.1百萬달러로 늘어났다.

이와같은 外資導入의 촉진은 우리나라 金融의 海外資金依存度を 높였을 뿐만 아니라 通貨供給경로를 왜곡시켰고 輸入을 增大시켜 國際收支를 惡化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市中銀行의 對外債務에 대한 支給保證을 擴大시켜 우발적인 債務負擔에 대한 「리스크」를 增大시켰다.<sup>(17)</sup>

〈표 III-3〉

東南亞主要諸國의 市中銀行金利水準

단위 : 年利 %

國名	預金金利(정기예금 1年)	貸出金利(상업어음割引)
韓 國	22.8	24.6
臺 灣	9.72	12.24
타 이	7.0※	14.0※
말 테 이 지 아	6.0※	8.0※
필 리 핀	7.0	10.0~14.0
인 도	6.0※	9.25※
파 키 스 탄	4.66	5.71
실 론	3.25	5.5~8.5
인 니	30.0	27.0
버 마	1.25	4.0

자료 : 日本銀行, 『調査月報』, 1969.10.

주 : ※ 印度는 최고 限度, 파키스탄은 加重平均한 實效金利, 印尼의 貸出金利는 輸出金融分, 버마의 貸出金利는 政府保證分임.

### 4. 優待金利에 의한 金融支援의 擴大

우리나라의 貸出金利構造는 資金源泉에 따라, 그리고 資金用途 (따라서 貸出機關)에 따

은 한편에서는 預金에 대한 高金利의 適用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65年以後의 國稅行政강화에 의한 稅負擔의 강화가 他人資本依存度を 높이기 하는 直接的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 1970年末 현재 外資導入 到着分은 20억 6천 4백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이 중 商業借款이 66.1%를 차지하였으며 大規模 商業借款導入은 法人企業의 負債比率를 增大시키고 財務構成이 불건전한 企業을 많이 발생케 했으며 對外負債상환문제를 비롯하여 무절제한 支給保證과 被保證業體의 支拂不能으로 5개 市中銀行이나 特殊銀行의 代拂이 累増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韓國經濟開發協會, 『金融産業改編문제에 관한 研究報告書』, 1970.3, pp.55-6 및 西江大學附設經濟·經營問題研究所, 前掲書, pp.39-40 參照.)

라 差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特徵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金融資金貸出과 財政資金貸出에 적용되는 金利가 完全한 二重構造를 形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資金의 用途에 따라, 또 資金을 貸與하는 金融機關에 따라 同一한 資金源이라 할지라도 差等金利가 적용되고 있다.

65年 9月の 金利現實化는 주로 金融資金貸出에 대한 적용金利를 대폭 引上한 反面에 財政資金貸出에 대한 適用金利는 引上조정하더라도 小幅에 그쳤으며 그로 인하여 一般金利와 우대금융간의 差異는 더욱 擴大되었다.

우대금리를 채택하는 이유는 다시 말할 것도 없이 輸出增大,<sup>(18)</sup> 機械工業의 育成 및 그

〈표 III-4〉 資金用途別·金融機關別·資金別金利의 推移 單位：年利%

用 途 別	金融機關別	資金別	1965.9.30 以 前	1965.9.30 實 施	1971.5 現 在
其他어음(一般貸出)	一般銀行	金 融	16.0	26.0	24.0
輸出어음	"	"	8.0	6.5	6.0
機械工業育成資金	"	"	—	—	12.0
農林資金	農 協	"	16.0	23.0	24.0
水利資金	"	財 政	3.5	3.5	3.5
中小企業資金	中小企業	金 融	14.0	23.0	23.0
中小企業施設資金	"	"	12.0	15.0	20.0
施設資金	"	財 政	9.0	11.0~12.0	12.0
運轉資金	"	"	10.0	16.0	18.0
相互賦金貸出	國民銀行	金 融	15.0	20.0	18.8
零細家內工業資金	"	財 政	10.0	16.0	18.0
一般資金—施設資金	產 銀	金 融	10.0	18.0	20.0
運營資金	"	"	10.0	18.0	23.0
財政資金—施設資金	"	財 政	8.0~10.0	10.0~12.0	12.0
運營資金	"	"	10.0	18.0	18.0
借款資金	"	借 款	8.0	8.0	8.0~10.0

자료：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주：(2號資金) 68.12.31까지는 一般融資 및 어음할인 金利.

밖의 바람직한 政策目的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資金의 用途에 따라 金利의 差等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하나 一般金利까지를 포함하여 金利構造가 거의 30個에 가까운 差等金利로 구성되어 있고 또 同一한 資金源인데도 不拘하고 貸出目的이나 그 取扱機關이 다르기 때문에 差等金利가 適用되고 있는 일이나, 貸出期間이 짧을 수록 貸

(18) 한 研究報告書에 의하면 1969年 10月현재, 美 1달러 輸出當 金融支援은 10.3원, 內國稅減免은 17.5원, 關稅減免은 37.4원 도합 65.2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韓國貿易協會, 『戰略輸出產業의 育成과 輸出振興政策 方向設定에 관한 研究』, 1970.4, p.714 參照.)

出金利가 높고 그 期間이 길수록 利子率이 낮아지고 있는 例가 있는 것은 不合理한 金利體系로 인해 資金의 效率의 配分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컨데 金融資金이나 財政資金에 의한 貸出이 貸出目的과 取扱機關에 따라 상당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나, 같은 施設資金이라도 資金源에 따라 그 差異가 큰 것, 또는 貸出期間이 長期인 경우 오히려 低利가 적용되는 財政資金에 의한 農事資金의 貸出이나, 長期貸出이라고 볼 수 있는 施設資金貸出에 대한 金利보다 短期貸出이라고 볼 수 있는 運營資金에 대한 適用金利가 모두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중에는 그 利率이 3.5% (水利資金), 6% (수출어음), 7.5% (產銀特殊資金) 등 그 水準이 物價上昇率에 미달하는 低利가 있는가 하면 零細家內工業資金이나 對零細漁民에 대한 漁村資金에 대한 金利와 같이 18% 또는 24%로 높은 金利가 적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밖에 產銀의 産業金融債券 (年利 22.8%)이나 住宅銀行의 住宅債券 (年利 21.8%)과 같이 高金利의 金融資金에 의해 低利 政策金融을 뒷받침하여 주고 이에 따라 金融機關損失을 政府가 보전하고 있는 不合理한 金利體系의 문제도 있다.<sup>(19)</sup>

#### IV. 金利의 調整方向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65年 9月の 金利現實化에 수반된 經濟的 利益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反面에 高金利政策의 폐단이 점차 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金利를 下向調整할 必要性은 강조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資本이 稀少한 우리나라의 경우 資金需要는 항상 資金의 供給을 초과하기 마련이며 金利의 下向조정은 資金供給을 줄일 可能性이 크다. 물론 資金의 供給은 間接金融만이 아니라 直接金融이나 通貨量增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資本市場이 發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前者에 크게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後者는 經濟安定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기에 金利의 下向調整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는 貯蓄者의 반응이 가장 큰 關心事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預金金利의 引下가 金融貯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하여 預金金利의 下向조정 한계가 설정된 다음에 貸出金利의 下向조정이 정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19) 1971年度 産業金融債券의 利子補償額은 17억 5천 7백만원, 住宅債券補償額은 4억원이 각각 計上되어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金利조정은 金利를 引下하되 바람직한 貯蓄總量을 확보하는 한편 資金의 効率的인 配分을 기할 수 있도록 그 體系를 정비하고<sup>(20)</sup> 나아가 一般金利水準을 점차 引下시키는 方向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1. 預金金利의 調整

韓銀의 資金 計定上에 나타나고 있는 部門別 貯蓄性預金の 動向을 보면 65—69年 期間

<표 IV-1>

部門別 貯蓄性 預金の 增加

(1969年 不變가액)

단위 : 10억원

	1965	1966	1967	1968	1969	(%) 年平均增加率
法人企業	11.3	18.4	34.8	77.3	159.3	87.7
(前年度增加率)%	(57.5)	(62.8)	(89.1)	(122.1)	(106.1)	
個人部門	56.6	110.8	176.6	280.8	379.8	66.0
(前年度增加率)%	(80.6)	(95.8)	(59.4)	(59.0)	(35.3)	
民間部門合計	67.9	129.2	211.4	358.1	539.1	70.0
(前年度增加率)%	(76.3)	(90.3)	(63.6)	(69.4)	(50.5)	
全部門合計	70.1	133.3	218.3	371.1	552.6	68.9
(前年度增加率)%	(71.9)	(90.2)	(63.8)	(70.0)	(48.9)	

자료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中 法人企業部門의 增加率이 가장 높고 다음에 個人部門이 뒤따르고 있지만 個人部門의 貯蓄性預金增加率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反面에 法人企業部門의 貯蓄性預金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最近에 발표된 한 研究結果<sup>(21)</sup>에 의하면 個人部門의 貯蓄性預金の 增加는 주로 可處分所得과 實質利子率 또는 貨幣化比率에 의해 決定되는 傾向이 있고 民間法人企業部門의 貯蓄性預金增加는 同部門에 대한 國內外與信의 增加와 同部門의 貯蓄에 의해 決定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더우기 個人部門의 貯蓄(在庫除外)의 경우 可處分所得보다 實質金利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銀行預金은 個人部門의 重要한 貯蓄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個人貯蓄이 實質利子率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實質利子率이 低下되면 個人貯蓄이 低下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預金利子率의 下向조정이 個人貯蓄을 크게 減小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정幅이 小幅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20) Homer Jones, *Korean Financial Problems*, June 1968, pp.41—7.

(21) 西江大學校附設 經濟·經營問題研究所, 「韓國의 金融市場」, 前掲書, 1970.11, pp.43—7.

다음에 金利水準은 이론상 또는 실제에 있어서 物價와 貯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物價上昇率이 높으면 높을 수록 一定한 貯蓄誘引을 유지케 하기 위해서는 名目金利는 上向조정되어야 하고 기대하는 貯蓄總量이 크면 클 수록 實質金利水準은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實質金利水準이라 할지라도 一定한 水準을 초과하면 金利의 引上에 따르는 限界預金增加率은 減小될 것이 分明하다. 이는 貯蓄性預金이 단지 金利水準에 의해서만 左右되는 것이 아니라 所得水準, 金融資產間的 代替關係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2)

그리하여 預金金利의 引下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貯蓄目標를 달성하되 最下의 金利로 最大의 預金增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最適金利水準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水準이란 資本의 限界生産力과 일치하는 水準에서 찾아 볼 수 있다. 67년에 Shaw 교수는 우리나라의 實質資本收益率을 15%前後라고 推計한 (23) 바 있고 最近 年間的 企業經營分析資料에 의해 推定한 資本收益率은 대체로 13%수준을 前後하고 있다. 또 均衡成長率이나 資本收益率 그리고 資本의 限界生産力의 計測을 감안하여 산출된 實質中心利率은 약 「13.66%」 水準에 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24)

이들 指標는 모두 預金金利의 引下에 대한 下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65년이후 實質金利의 推移를 보면 그간 세차례에 걸친 金利의 下向조정과 함께

〈표 IV-2〉 預金銀行預金利率 단위: 年利 %

	全國都賣物價 上 昇 率	定期預金(1년이상)		普通 預 金	
		名目金利	實質金利 <sup>1)</sup>	名目金利	實質金利 <sup>1)</sup>
1 9 6 4	34.7	15.0	-19.7	1.8	-32.9
1 9 6 5	10.0	30.0	20.0	1.8	-8.2
1 9 6 6	8.8	30.0	21.2	1.8	-7.0
1 9 6 7	6.4	30.0	23.6	1.8	-4.6
1 9 6 8	8.1	25.2	17.1	1.8	-6.3
1 9 6 9	6.8	22.8	16.0	1.8	-5.0
1 9 7 0	9.1	22.8	13.7	1.8	-7.3

자료: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주: 1) 名目金利에서 都賣物價上昇率을 차감.

(22) 貯蓄性預金の 決定要因에 대하여는 韓國銀行, 「우리나라 貯蓄性預金の 決定要因에 관한 分析」, 『調査月報』, 第24卷, 第7號, 1970.7, pp.30-9 및 西江大學校附設 經濟·經營問題研究所, 「韓國의 金融市場」, 前掲書, 1970.11, pp.43-7 參照.

(23) Edward Shaw, *Financial Patterns and Policies in Korea*, USOM-Korea, April 1967.

(24) 韓國銀行이 마련한 非公式 推計이다.

物價上昇率이 점차 커짐에 따라 實質金利水準은 계속 下落되었고 70年에는 名目金利의 下向조정은 없었으나 物價上昇의 幅이 커 實質金利가 크게 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68年 및 69年에 실시된 金利의 下向조정은 物價水準의 上昇과 함께 實質金利를 17.1% 및 16.0% 水準으로 끌어내렸으나 68년에는 貯蓄性預金이 實質的으로 70.6%가, 69년에는 55.6%가 각각 增加하였다. 그런 점에서 物價安定이 이루어 지고 不動產에 대한 投資가 강력히 規制되는 한 金利를 小幅的으로 引下할 餘地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韓銀의 推計와 같이<sup>(25)</sup> 貯蓄性預金總額의 實質利子彈力性이 매우 작은 것이 事實이라면 小幅的인 名目金利의 引下가 貯蓄性預金을 減小시킬 可能性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표 IV-3〉 저축성예금 결정요인 대비표  
(예금주체별)

	저축성 예금 총액	법인 기업 저축성 예금
실질 금리 탄력성		
예 금 금 리	0.1150	2.8500
신 탁 금 리	-0.0801	-2.8771
사 채 금 리	-0.1147	-0.5041
유동성 탄력성		
금융 기관대출	0.5681	2.5919
순 의 환 매 입	0.0012	-0.6305

자료 : 韓國銀行, 『우리나라貯蓄性預金の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제24권, 제7호, 1970.7, p.36.

그러므로 우리는 實質資本收益率을 15%로 보고 年間 物價上昇率을 6—7%수준으로 보아 名目金利를 21—22%線에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物價上昇率을 6%以下로 抑

〈표 IV-4〉 定期預金 利率 調整案 단위 : %

	名目利率	名目年利率 (月率×12)	名目年利率 (1+月率) <sup>12</sup>	都賣物價 上 昇 率	實質年利率 <sup>2)</sup>
1 9 6 6	2.2	26.4	29.8	9.3 <sup>1)</sup>	20.5
1 9 6 9	1.9	22.8	25.35	6.8	18.55
1 9 7 1					
(1)	1.83	22.0	24.31	7.0	17.31
(2)	1.75	21.0	23.15	7.0	16.15

자료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주 : 1) 2年平均, 2) 複利에 의한 名目年利率에서 都賣物價上昇率差減.

(25) 計測된 預金種別 實質利子彈力性은 定期預金이 0.101, 定期積金 및 相互賦金이 0.028, 其他貯蓄性預金은 -0.785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韓國銀行, 『우리나라 貯蓄性預金』, 前掲書, p.33 參照.)

制할 수 있을 경우에는 預金金利의 引下幅은 더 크게 策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할 때 實質金利水準은 68—69年 水準과 거의 같아지며 계속적인 貯蓄增大를 위한 貯蓄誘引은 弱化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現행 定期預金 利率構造를 보면 1年未滿의 定期預金에 대하여는 預置期間이 길어짐에 따라 利率이 높아지고 있으나 1年以上 定期預金에는 期間에 관계없이 一律의 利率이 適用된다. 그리하여 短期預金은 長期預金보다 金利面에서 우대되고 있는 反面에 長期預金은 物價上昇에 따른 貯蓄價値의 減少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1年 미만 貯蓄性預金에 대하여는 그 利率을 大幅 引下하는 反面에 中期貯蓄性預金에 대한 利率을 높이 책정하여 一般銀行이 長期貸出資金을 조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期間別 金利構造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26)</sup>

## 2. 貸出金利의 調整

우리는 名目預金利率을 1年滿期 定期預金の 경우 現행 年利 22.8%에서 22% 또는 21% 水準으로 引下할 것을 제안하였거니와 이에 따라 貸出金利도 그러한 수준으로 引下할 것을 권고한다.

最近年間 수차에 걸친 金利의 引下조장과 物價上昇으로 인하여 實質貸出金利도 크게 低下되었지만 貸出金利를 21—22% 水準으로 인하할 때 이는 一般貸出의 경우 2—3%의

<표 IV-5>

一般銀行主要貸出金利

단위 : %

	상업어음할인		기타어음		당과대월		연체어음		기계공업육성자금		
	名目	實質	名目	實質	名目	實質	名目	實質	名目	實質	
1964	34.7	14.0	-20.7	16.0	-18.7	18.5	-16.2	20.0	-14.7	—	—
1965	10.0	24.0	14.0	26.0	16.0	26.0	16.0	36.5	26.5	—	—
1967	6.4	24.0	17.6	26.0	19.6	28.0	21.6	36.5	30.1	—	—
1968	8.1	26.0	17.9	26.0	17.9	28.0	19.9	36.5	28.4	12.0	3.9
1969	6.8	24.6	17.8	25.2	18.4	26.0	19.2	36.5	29.7	12.0	5.2
1970	9.1	24.0	14.9	24.0	14.9	26.0	16.9	36.5	27.4	12.0	2.9

자료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1.

引下를 의미한다. 또 이와같이 引下된 水準은 우리나라 金融市場에서 去來되는 國內資金의 平均利子水準과도 유사하다(69年上半期 22.8%, 70年 2月현재 21.3%).<sup>(27)</sup>

다만 預·貸利率을 접근시킬 때 市中銀行의 收益性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平均預金金

(26) Hugh Patrick, *op. cit.*, pp.13—4 및 韓國經濟開發協會, 「一般金融의 効率化」, 前掲書, 1971. 2, p.59 參照.

(27) 69年 上半期는 韓國經濟開發協會의 計測이며 70年 2月은 非公式의 韓銀推計임.



리는 代表金利보다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대금리의 조정 등 金利體系의 정비에 의해 實質的으로 平均預・貸利率은 差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別로 큰 문제거

〈표 IV-6〉 一般銀行 金利別 貸出金 單位: %

年度	利率	8%	8~	10~	12~	14~	16~	18~	20~	24~	26~%	합계	대출금 평균이율
		미만	10%	12%	14%	16%	18%	20%	24%	26%이 상			
1964	하	17.1	—	0.8	14.7	50.1	4.5	12.8	—	—	—	100	16.3
1965	상	15.4	—	2.0	11.5	57.3	13.8	(13.8)	—	—	—	100	16.15
	하	12.2	—	0.9	6.9	68.9	11.1	(11.1)	—	—	—	100	16.05
1966	상	9.7	—	1.7	—	—	—	—	4.4	69.3	14.9	100	22.89
	하	7.7	—	2.2	—	—	—	—	4.4	69.6	16.1	100	24.96
1967	상	11.5	—	3.5	—	—	—	—	5.7	59.5	19.8	100	25.17
	하	14.4	—	4.4	—	—	—	—	10.8	65.8	4.6	100	24.98
1968	상	7.7	—	3.4	—	—	—	—	2.7	50.3	25.9	100	24.42
	하	10.0	—	6.0	—	—	—	—	3.0	65.4	15.6	100	23.01
1969	상	9.5	—	10.9	—	—	—	—	42.9	28.6	8.1	100	22.8

자료: 한국은행, 『經濟統計年報』, 1971.  
 주: 신탁은행 및 외환은행 국내지점은 제외함.

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69年上半期 一般銀行 平均預金利子率은 15.15%).

다음에 一般銀行의 金融資金貸出에 대한 적용금리도 당좌대일, 물론, 延滯어음 그리고 輸出進항을 위한 貸出에 대한 金利를 除外하고 모두 代表金利로 묶어 單純化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財政資金貸出에 있어서도 可及的 金融資金貸出에 대한 적용利率과의 差異를 좁히는 方向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運營資金貸出에는 市中銀行의 代表金利인 21—22%를 적용하도록 하고 施設資金에는 그보다 3—4% 「포인트」가 낮은 年 18% 정도의 利率을 適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69年度 企業利益率(製造業) 13.39%에 物價上昇率을 가산하는 경우 20.39%가 되며 제안된 施設資金의 貸出利率을 上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金利水準이 企業投資에 충격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施設資金金利의 上向조정은 資本市場의 育成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sup>(28)</sup>

물론 이와같은 제안은 모든 政策金利를 그러한 水準으로 引上조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特定한 事業을 育成하기 위해 부여되고 있는 우대금리도 最小限 物價上昇率과 國際金利水準을 合한 水準으로 引上조정되는 것이 金融市場의 正常化나 金利기능을 올바르게 발 휘케 하기 위해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28) 金利現實化는 預金銀行利率을 株式配當率보다 2倍 정도의 水準에 끌어 올림으로써 資本市場의 育成을 저해하였다. 즉 1964年の 配當收益率은 17.7%에 預金銀行 最高金利는 15%이었으나 1965년에는 配當收益率이 17.7%가 된데 대하여 預金銀行金利는 30%가 되었다.

끝으로 貸出金利構造에 있어서도 短期貸出과 中長期貸出간에는 利率의 差異가 있어야 할 것이며 貸出期間이 길 수록 보다 높은 金利를 적용하는 금리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貸出期間에 비례하여 金利負擔을 增加시키는 方法에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金利는 바람직한 水準까지 引下되어야 할 것이므로 期間別金利構造의 改編이 오히려 金利構造의 多元化를 가져다 주지 않도록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1971年 5月).

## V. 附 記

1965年 9月 30日의 金利現實化이후 네번째 金利水準引下調整이 1971年 6月 28日에 단행되었다. 長期的인 金利引下政策方向에 부응하여 취하여진 이 金利의 下向調整도 預金金利의 引下が 貯融性預金에 미치는 效果를 고려하여 預貸金利의 引下幅이 小幅의이었다. 그러나 最高金利는 預·貸金利間의 利子率幅이 다소 확대되는 方向으로 개정되었고 「덤·론」 制度를 도입하여 貸出期間의 長短에 따라 그 適用金利를 달리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여 預金에 있어서도 2년제 長期性定期預金制度를 신설하여 長期預金者에 대해서는 金利面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金利引下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金融機關與受信業務 最高利率

金融通貨委員會에 의하여 결정되는 金融機關與受信業務 最高利率은 다음과 같이 引下調整되었다.

#### 1) 受信金利

定期預金의 最高利率은 종전의 年 22.8%(月1.9%)에서 年 21.3%(月 1.775%)로 1.5% 「포인트」가 引下되었고, 定期積金의 最高利率은 年 23%에서 年 21%로 引下되었다. 그밖에 새생활預金은 年 9.6%에서 年 8.7%로 引下되었으나 國民貯蓄組合預金, 새 農民預金, 納稅貯蓄組合預金의 最高利率은 각각 1.8% 「포인트」가 引下되었다.

#### 2) 與信金利

商業어음 最高割引率은 종전의 年 24%에서 年 22%로 2% 「포인트」가 引下되었으나 「기타어음」의 最高利率은 年 24%에서 年 23%로 1% 「포인트」가 引下되었다. 또 當座貸越과 콜·론의 경우에는 종전의 年 26% 및 21%에서 年 24% 및 年 19%로 각각 2% 「포인트」가 引下되었다. 그밖에 輸出金融金利는 종전과 같이 年 6%水準에 고정되었으나 輸入金融金利는 종전의 年 6%에서 年 9%로 引上되었다.

### 2. 金融機關與受信業務 實行利率

最高利率의 개정에 따라 協定된 實行利率은 다음과 같다.

1) 主要受信利率(年利%)

區 分	改正前	改正後
定期預金		
2年以上滿期	(신 설)	21.3(월 1.775)
1年以上滿期	22.8 (월 1.9)	20.4 (월 1.7)
6개월 " "	16.8 (" 1.4)	14.4 (" 1.2)
3개월 " "	12.0 (" 1.0)	10.2 (" 0.85)
定期積金		
3年	23.0	21.0
2年	23.0	20.0
1年 6個月	21.0	19.0
1年	19.0	17.0
6個月	16.0	14.0

그밖에 生生活預金, 國民貯蓄組合預金, 納稅貯蓄組合預金 등에는 모두 最高利率과 같은 實行利率을 채택하였다.

2) 主要與信利率(年利%)

區 分	改正前	改正後
기타어음		
1年以內	24.0	22.0
1年超過 3年以內	—	(신설) 22.5
3年超過 5年以內	—	( " ) 23.0
수입어음	6.0	9.0
商業어음	24.0	22.0

3. 特殊銀行金利의 引下調整

一般銀行 與受信金利의 引下와 함께 特殊銀行與受信利率도 一部 引下調整하였다. 特殊銀行與受信利率의 引下幅도 最低 1%에서 最高 3% 「포인트」에 달하고 있었으며 産業金融債券이나 住宅債券利率에도 기간부 差等利率을 적용하도록 하고 國民銀行의 相互賦金, 住宅銀行의 住宅賦金率을 각각 定期積金利率과 같은 水準으로 引下하여 一般銀行與受信利率과 特殊銀行與受信利率間의 均衡化를 도모하였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